

# 광주사회서비스원 개원 준비 속도

### 제1차 이사회 열고 주요 운영규정·예산안 등 심의 의결 이용섭 시장, 조호권 원장 임명장...직원채용 등 박차

광주사회서비스원이 운영규정과 예산안을 의결하는 등 개원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광주시는 14일 "오는 7월 개원을 준비 중인 광주사회서비스원이 지난 12일 첫 번째 이사회를 열고 주요 운영 규정과 예산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사회에서는 합철호 광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이사장으로 선출됐다. 사무처장, 팀장 등 경력직 7명을 블라인드 방식으로 채용하기로 하고 서류 심사서면까지 모든 절차를 전문기관에서 대행하도록 했다. 나머지 직원은 광주복지재단과 기능 조정 등을 고려해 하반기 공공기관 통합 채용 시 선발한다. 광주사회서비스원은 재단법인 설립등기를 19일까지 마무리하고 광주 우체국보통화관에 사무실을 마련한 뒤 직원 채용 절차에 들어가는 등 7월 1일 개원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이용섭 시장은 이날 조호권 초대 원장을

을 비롯한 이사 11명과 감사 2명 등 초대 임원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이 시장은 "원장을 비롯한 이사회 중심

으로 복지 현장과 긴밀하게 소통하며 전국적인 성공 모델을 만들어 달라"며 "개원 후 우선 공립어린이집, 종합재가센터 중심으로 운영하면서 광주복지재단 운영 시설에도 노조와 협의를 통해 연말까지 이관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조 원장은 "기존 복지 현장에 변화와 혁신을 끌어낼 책임이 사회서비스원에 있다"며 "임원들과 함께 현장 목소리를 경청하면서 좋은 돌봄,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광주형 복지 모델을 창출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이용섭 광주시장은 지난 12일 (재)광주사회서비스원 조호권 초대 원장을 비롯한 이사 11명과 감사 2명 등 초대 임원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 광주시, 남북교류 협력사업 직접 추진한다

### 대북지원사업자 승인 받아 민주인권평화국 신설 업무 관장

광주시가 남북교류 협력사업을 직접 추진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광주시는 민선 7기 들어 출범 4개월만에 남북교류 업무 등을 맡는 민주인권평화국을 신설하고, 북측과 민간 차원의 남북교류 협력사업 재개 합의를 이끌어 내는 등 대북지원 사업에 공을 들여왔다.

광주시는 "통일부로부터 15일자로 대북

지원 사업자로 지정돼 남북교류 협력 사업을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고 14일 밝혔다.

기존에는 광주시가 교류 협력사업을 추진하려면 반드시 민간단체를 통해야만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직접 추진이 가능해짐에 따라 광주의 특색이 담긴 남북교류협력사업을 펼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광주시는 남북교과 국면에서도 북한 수해지역에 협력 물자를 지원했으며, 광주 세계수영선수권대회를 비롯한

각종 국제행사를 개최하는 과정에서 북측에 직접 북한 선수단과 응원단 참가를 요청하는 등 남북교류협력사업을 꾸준히 추진해왔다.

시는 특히 2018년 11월 민선 7기 출범 4개월만에 민주인권평화국을 신설하고 남북교류, 평화, 교류 등을 전담하는 평화기반조성과를 구축하기도 했다.

시는 앞서 같은 해 10월에는 광주시남북교류협의회와 10·4선언 11주년 기념행사 참석차 방북한 뒤 북한 민족화해협의 회측을 만나 그동안 중단됐던 남북교류

협력사업 재개에 관한 합의를 이끌어내는 성과도 냈다.

광주시는 이번 통일부의 대북지원사업자 지정을 계기로 독자적 대북 협의체 역할을 맡고 구축하는 한편 향후 남북교류 활성화를 위한 각종 사업계획을 북측 정세 등을 반영해 수정·보완하고 통일부, 민간단체 등과 적극 협력해 추진할 방침이다.

이명순 시 평화기반조성과장은 "6·15 공동선언 20주년을 맞아 대북지원 사업자로 지정돼 더 의미가 있다"며 "남북교류 협력의 발판을 마련하는 데 힘을 보태도록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 광주시 탄소포인트제 우수시설 27곳 선정

광주시는 14일 2019년 탄소포인트제 우수시설 27곳을 발표했다.

학교 부문에서 계수초·전대사대부중·일동초, 상업 시설 부문에서 광주환경공단·일신방직 광주 1공장·금호월드, 배출 시설 부문에서 그린테크·해피뷰병원·삼호 축산이 최우수 시설로 선정됐다.

우수 9곳, 장려 9곳이 뽑혔다.

계수초는 온실가스 감축량이 80t으로 최근 2년 대비 78%를 절감했다. 그린테크

는 92%, 광주환경공단은 78%를 줄였다.

시는 최우수 시설에 300만원, 우수에 200만원, 장려에 100만원의 시상금을 지급했다.

시는 2014년부터 탄소포인트제에 가입한 학교, 상업시설, 배출시설을 대상으로 전기·수도·가스 중 2개 이상 에너지 사용량이 온실가스 감축량·감축률을 평가해 우수시설을 선정하고 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 이른 장마에...보성·고흥 등 416ha 벼 침수 피해

지난 12일부터 3일간 100mm가 넘는 장대비가 쏟아진 보성, 고흥 등 남부 해안 지역 중심으로 416ha의 벼 침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14일 보성 특례만 간척지의 집중호우 피해현장을 긴급 방문, 피해실태를 점검하고 피해농가도 위로했다.

지난 12일부터 3일간 보성 144mm를 비롯 무안 140mm, 함평 138mm, 신안 137.5mm 등 남부 해안지역을 중심으로 내린 집중호우로 벼 등 농작물 침수 피해가 발

생했다.

김 지사는 이날 보성군 득량만 간척지 벼 침수피해 현장을 둘러본 후 "모내기 한 지 얼마 안된 시기에 피해를 입게 돼 안타깝다"며 피해 농가를 위로하고, "피해조사를 빠짐없이 실시하고 피해 최소화를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피해 농가들에 대해 병해충해 예방에 각별히 신경쓰고, 이달 26일까지 벼 재해보험에 가입해 줄 것을 당부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 전남도, 에너지밸리기업 유치 총력

### 상반기 35개기업 투자협약 체결 537명 고용창출 기대

전남도가 에너지밸리 기업 유치를 투자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한전과 지자체는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조성중인 에너지밸리에 올해까지 500개 기업을 유치하겠다는 목표 달성을 위해 적극적인 투자유치 활동을 펼치고 있다. 현재 465개 기업을 유치해 목표의 93%를 달성했다.

전남도는 '코로나19'로 인한 국내외 경기침체 등 어려운 투자여건에도 불구하고 올해 상반기 35개 기업과 에너지밸리에 투자유치 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규모는 투자금 3640억원, 고용창출 537명이다.

이와 함께 한국폴리텍대학(광주캠퍼스), 광주인력개발원과 에너지밸리 기업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도 함께 진행해 인력 수급과 기업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할 방침이다.

협약은 '코로나19' 대유행을 감안해 비대면으로 진행하며, 6월 말까지 협약을 완료할 계획이다.

앞으로 빛가람 에너지밸리는 4차 산업혁명시대가 도래하고 '코로나19'로 미래 성장 기반 마련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전남도는 한전 등 에너지 기업과 함께 에너지 기업·연구기관을 집중화하고, 에너지산학융복합단지과 규제자유특구,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 등을 통해 제도적 기반을 체계적으로 구축할 계획이다.

배택우 전남도 일자리정책본부장은 "경제가 팬데믹 사태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에너지가 미래 먹거리산업의 주력인 만큼 위기를 기회로 바꿀 전환점으로 만들겠다"며 "에너지밸리가 활력을 잃지 않도록 밸리 조성과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 전남도 '적조 피해예방 종합대책' 마련

### 대책위 구성 예찰·예보 강화

여름철 적조로 인한 어·패류 폐사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전남도가 양식어민, 전문가 등으로 적조대책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적조방제 종합대책'을 마련해 실시한다.

14일 국립수산과학원 등 국내외 연구기관에 따르면 올해는 평년보다 강한 대마난류 세력 등의 영향으로 우리나라 연안 수온이 평년 대비 섭씨 0.5도에서 1도 가량 높은 것으로 전망함에 따라 지난해보다 다소 이른 7월 중·하순경 적조주의보가 발령될 전망이다.

전남도는 이에 따라 최근 적조 연구·예찰·방제 전문가와 양식어업인 등 20명이 참석한 '전남도 적조대책위원회'를 개최, 방제장비 점검 등 철저한 사전 준비와 예찰·예보활동 강화, 민·관 협업체대를 통한 피해 최소와 대책에 대해 논의했다. 적

조방제 종합대책으로 ▲예방 중심적 대응 체계 확립 ▲예찰·예보 활동 강화 ▲민·관·경 합동 현장 대응 ▲피해예방 관계기관 협업 ▲피해발생 시 신속한 피해 복구 및 경영안정 지원 등 5대 중점 추진과제를 마련해 추진기로 했다.

위광환 전남도 해양수산국장은 "자연재난인 적조는 민·관·경이 하나가 돼 피해 최소화를 위해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며 "특히 여름철 적조 피해발생에 대비해 어업인 스스로가 어장을 관리해야 하고, 적조 발생 시 방제작업 추진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지난해 8·9월 전남에서는 완도·여수해역에서 발생한 적조로 가두리양식 10여가에서 5억원의 피해가 발생한 바 있다. 당시 전남도는 신속한 초동대처와 집중방제에 올해 적조대책 유공 해양수산부장관 기관 표창을 받았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 전남도 '유망 중기 지정' 참여기업 22일까지 모집

전남도는 성장 잠재력이 큰 중소기업을 발굴해 중소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올해 '유망 중소기업 지정 사업' 참여기업을 오는 22일까지 모집한다.

신청자격은 전남에서 3년 이상 사업장을 운영중인 제조업(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지식기반 서비스업 포함) 중 3년 평균 매출액이 20억원 이상인 중소기업이다.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과 지식기반 서비스업은 10억원 이상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신청서는 사업장 소재지 사군에 접수하면 된다. 서류심사와 현지실사 등을 거쳐 오는 7월 지정기업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유망 중소기업으로 지정되면 앞으로 3년간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한도 상향 및 우대 금리 지원을 비롯 판로·수출 분야 지원사업 선정 가점 등 우대 혜택을 받게 된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시민에게 힘이 되는 정의로운 의회**

**순천시의회는**

시민의 대표이자 대변인이라는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민생안정과 시민복지를 최우선으로 삼아 순천시의회 변화와 혁신 그리고 "시민에게 힘이 되는 정의로운 의회"를 실현하여 시민들로부터 박수 받는 의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순천시의회**

**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

**이웃을 위한 따뜻한 손길  
어르신 돌봄은행이  
함께합니다!**

"이제는 자원봉사도 저축이 된다"

**어르신 돌봄은행이란?**

돌봄이 필요한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에게 돌봄활동을 제공하면 이를 돌봄포인트로 적립·관리하고, 만 65세 이후에 본인·가족·제3자가 돌봄활동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돌봄봉사자 모집**

- 돌봄봉사자 자격 : 만13세이상, 2인 1조 활동 권고, 4시간 교육 필수(교육시간도 포인트 혜택)
- 돌봄봉사자 혜택
  - 돌봄활동 1시간당 1포인트 적용(적립 및 사용)
  - 돌봄활동 시간 VMS 연계 적립
  - 돌봄포인트 적립 시 의무기부 20%
  - 적립한 포인트는 가족과 제3자에게 기부 가능
- 돌봄활동 범위
  - 인지활동·정서지원, 가사·일상생활지원, 주택안전관리 등
- 돌봄봉사자 기초관리교육 : 수시 모집

**돌봄대상자는?**

- 어르신 돌봄은행에 회원등록한 만65세이상의 어르신 중 전문가가 돌봄활동 제공이 필요하다고 추천한 자이거나, 만 40세 이후 본인인적 돌봄포인트와 기부받은 포인트의 합계가 100포인트 이상인 어르신
- 돌봄서비스 범위 : 인지활동·정서지원, 가사·일상생활지원, 주택 안전관리 등

**CCC 동구노인종합복지관** [www.noin.or.kr](http://www.noin.or.kr)  
☎ 062-232-4953

**1688-3579**  
(전국 50개 시군구소재)

**보건복지부** **SSN**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신세계안과**

**10인의 안과전문의**

**분야별 진료**

노안 백내장    스마일 라식·라섹    녹내장    당뇨 망막병증

신세계백화점 대각선 눈모양빌딩 ● 신세계안과 1566-9988